

#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관내 상호대차 서비스 지역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interlibrary loan services of small libraries

정다솜,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skyfly0717@hanmail.net

이은진,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redawon@naver.com

Da-som Jeong,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Eun-jin Lee,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의 장서부족문제를 개선할 현실적 대안으로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간의 상호대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상호대차의 개념과 유형을 논하고, 서울시 구립공공도서관의 상호대차 서비스 현황을 파악한다. 사례연구로 관내 상호대차 서비스를 수행하는 서울시 산하 구립 공공도서관 3곳을 비교 분석하고, 담당 사서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 내 상호대차 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진흥팀이 개설된 이래로 작은도서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작은도서관을 문고활동의 단순한 발전 형태로 바라보는 시선을 넘어, 「도서관법」이 규정한 공공도서관 범주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닌 기관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공공도서관과의 연계성과 도서관 서비스의 내용적 강화보다는 양적인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져 추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상호대차시스템 조성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상호대차서비스를 통해 지역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연계하여 작은도서관이 도서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통상적 공공도서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도서관 규모의 영세성에서 비롯된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이 있다. 이와 같은 당면한 문제점들을 풀기 위해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의 장기적 발전의 첫걸음이 도서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상호대차 서비스의 안정적 뒷받침이라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과 간의 관내 상호대차 서비스를 활용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도서관간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작은도서관이 갖는 '규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는 상호대차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장서 부족의 해결과 지역 내 이용자의 편의성을 확대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 1.2 선행연구

국내의 공공도서관 상호대차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도서관의 상호협력 분야에서 그 개념을 다루고 있다. 「도서관법」 제28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7가지 업무 중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조항이 바로 그 협력 업무의 근거다.

남영준 외(2008)는 공공도서관 지원 모델 개발에 대해 적극적인 상호대차 실시 방안의 마련과 작은도서관 협력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숙희(2010)는 ‘책바다’ 이후 상호대차를 실시하는 도서관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상의 연구들은 공히 지역수준에서 지역대표도서관과 개별 도서관들의 상호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이와 관련해 공공도서관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상호대차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김수범(2008)은 지역사회의 자원공유를 위한 상호 협동시스템으로 공공도서관의 정보네트워크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윤희(2010)는 행정구역권 중심의 공공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해 도서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담당하여 상호대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논하였다. 유양근, 박송이(2010)는 상호대차 서비스의 거점으로 작은도서관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처럼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연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상호대차 서비스를 통한 지역 도서관의 활발한 자원공유에 있어 작은도서관이 수행하는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작은도서관의 장서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상호대차 서비스를 언급하는 연구도 있다. 박영애, 이재윤(2010)은 상호대차 신청이 주로 이웃 도서관에 집중되며 주제별 도서관 이용 수준이 높은 분야가 상호대차 의존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장덕

현(2010)은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유기적 장서개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공공도서관 상호협력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상호대차 서비스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연구의 핵심적 주제로 다룬 성과는 찾기 어렵다. 또한 실제 이용자가 느끼는 불만요소를 밝히는 등 이용자 인식에 집중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후속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2. 이론적 배경

### 2.1 상호대차 서비스의 개념과 유형

상호대차 서비스는 도서관 협력의 한 방법으로 협력을 맺은 도서관 간에 자료의 공동 이용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별 도서관이 갖는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웃 도서관과 자료를 공유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호대차 서비스는 자료의 유형과 운영 주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상호대차 서비스의 자료 유형은 실물자료의 대출과 전자화된 자료의 원문을 전송하는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상호대차 서비스는 일반 도서자료의 대출에서 원문 자료의 복사 서비스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에서의 상호대차 서비스는 일반도서 자료의 대출을 의미하지만 연구적 성격을 갖는 대학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에서는 문헌자료에 대한 원문복사전송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상호대차 서비스의 운영 주체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상호대차 서비스인 ‘책바다’와 관내 지역구 도서관끼리 연계하여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관내 상호대차 서비스로 나누어진다. ‘책바다’는 국가표준 상호대차 서비스로 국립중앙도서관이 주관하여 전국 단위로 운영한다. 반면, 관내 상호대차 서비스는 지역 도서관내의 개별 도서관들이 자료의 공동이용을 허락하여 자료의 대출을 통합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상호대차 서비스의 개념은 일반 도서자료의 대출을 의미하며, 지역구 내의 개별 도서관들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구 내에서 자원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 2.2 상호대차 서비스의 현황

서울시 구립공공도서관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2월을 기준으로 관내 상호대차 서비스는 25개 중 17개의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었다. 이는 자치구 상호대차 서비스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해당 지역의 관내 도서관 사정에 따라 일부 혹은 전체가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어 도서관 운영 주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해 2013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 기준의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현황을 보면 총 741개관의 작은도서관 중 102개관이 현재 서비스를 시행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통계 수치는 국가표준 상호대차 서비스인 ‘책바다’와 관내 상호대차 서비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들 작은도서관은 운영주

체에 따라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은 공립과 사립의 구분에서 상호대차 서비스를 실시하는 공립 작은도서관이 총 75개소로 전체 101곳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공립 작은도서관이 사립 작은도서관과 문고에 비해 지자체의 예산과 운영에 대한 지원이 확보되기 때문이며 이들 중 일부는 공공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수행하는 서비스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3. 사례 연구

다음에서는 관내 상호대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산하 3개 기초자치단체의 각 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상호대차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업무의 인식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아래의 <표 2>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으며 이외에 보충설명이 필요한 질문은 인터뷰 내용으로 대신한다.

<표 2>에서 보듯이 B, C도서관은 A도서관보다 관내 상호대차 대상 도서관의 규모가 4배 이상 많다. 이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주체가 공립인 경우에 한해, A도서관의 상호대차 서비스가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작은도서관이 지역 공공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수행하는 서비스 거점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서비스 운영의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어 추후 서비스 개선과 더불어 체계화된 인프라

<표 1>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현황(2013년 1월 기준)

도서관 유형	운영주체	개수
공립	지자체 직영	54
	민간 위탁	21
사립	개인 및 단체 설립	2
	새마을 문고	22
	종교 시설 문고	2
	아파트 작은도서관	1

<표 2> 상호대차서비스 비교

	A도서관	B도서관	C도서관
개관일	2008.06	2012.11	2009.06
장서량	21,257	12,443권	23,985
분담수서	X	X	O
상호대차 전담인력	X	O	O
주 신청도서	전공서적및 주제전문도서	문학, 사회과학	아동필독서및 교육관련도서
상호대차대상 도서관	자관포함 4관	자관포함 22관	자관포함 23관
월별 신청/제공건수	약 1,153 / 399	약 1,190 / 375	약 200 / 1,000
대출건수	3권	5권	2권~5권
통합 대출건수 (상호대차 포함)	12권	5권	2권~5권
배송 소요시간	2~3일	1일	3~4일
자관소장 안내여부	X	O	X
타관반납	O	O	X
자료 발송 후 취소	15일 제한	취소가능	취소 불가
제재 (페널티)	1회 미수령 시 30일 제한	2회 미수령시 1개월 제한	제재 없음 (홈페이지와 상이)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호대차 서비스 전담 인력의 유무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공도서관에서 해당 지역의 권역별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인원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상호대차를 운영하려면 매일 각 도서관에서 책을 수거하고 운반해야 하는데 전담 인력의 부재로 인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인력 뿐 아니라 운반에 필요한 차량의 확보도 어렵고 [...] 이로 인해 주말에는 운영되지 않고 있어 이용자 분들이 불편해 하시기도 합니다(A도서관 사서).

관내 도서관 연결망이 크다 보니 전담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일 2회의 차량 운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비스 활성화로 추후 인력 충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만약, 서비스 전담인력 없다면 다른 업무와 병행하기에 다소 힘들다고 생각됩니다(B도서관 사서).

관내 상호대차 서비스와 국가표준상호대차인 '책바다'를 비교했을 때 관내 상호대차 서비스가 갖는 이점에 대해서는 무료로 운영된다는 점과 신속성, 그리고 관련 서비스의 문제점에 즉각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서비스 통제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요구와 문제점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비용부담이 없기 때문에 관내 상호대차 서비스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A도서관 사서).

관내 상호대차 서비스가 갖는 이점은 신속성입니다. '책바다'는 배송기간이 관내에 비해 길고 이용자 비용 부담도 발생하고 [...] 이용자 신청 도서 중 대부분은 구내의 도서관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B도서관 사서).

'책바다'는 책이 배송되기까지의 소요시간에 비해 대출 기간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상호

대차가 그에 비해 신속하고 빠른 회전율을 보입니다(C 도서관 사서).

작은도서관의 상호대차 서비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필요성은 공간의 한계성에 따른 서가의 부족과 예산문제로 인한 장서 부족의 해결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산문제로 장서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보다 내세울 수 있는 게 상호대차 서비스입니다. 장서의 다양성과 주제 분야의 깊이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통해 해결하는 입장입니다(A도서관 사서).

상호대차는 받는 거점이 중요하므로 입지적 조건에 유리한 작은도서관에서는 더없이 필요한 서비스로 개별 도서관의 장서부족 해결 및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합니다(B도서관 사서).

이외에 상호대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오류에 대한 보완과 자관 소장 도서에 대한 신청 제한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또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필요성과 앞서 언급한 전담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4.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은도서관은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서부족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상호대차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한 환경의 정립은 다음의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상호대차 서비스 전담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관내 상호대차 서비스의 표준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서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담당인력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매뉴

얼 보급을 위해 현장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은 상호대차 서비스 거점의 기능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한 공공도서관 분관시스템 역할로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강숙희. 2010.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상호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3): 69-98
- 국립중앙도서관. 2006. 작은도서관 조성평가.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2006.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방안.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2007. 국가표준 상호대차 기준(안). 국립중앙도서관
- 김수범. 2008. 지역공공도서관 자료 상호대차 제도의 활성화 방안. 교육제주: 140: 174-185
- 남영준, 김규환, 남태우. 2008.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1): 177-192
- 박영애, 이재윤. 2010. 대출 및 상호대차 통계를 활용한 작은도서관 장서 평가에 대한 실험적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2): 333-356
- 유양근, 박송이. 2010. 작은도서관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1): 175-189
- 장덕현. 2011. 작은도서관 장서개발 과정에 관한 현상적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4): 203-221
- 조윤희. 2010. 공공도서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2): 177-197